

종이 책과 전자 책 사이에 존재하는 것



한복희*

종이 책과 전자 책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는 '과'가 있다. 얼마나 순진한 답변인가? 정보봉사연구 수업시간에 대학원생들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책을 만지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보았다. 대학원 학생들은 대개 연구단지의 연구소나 대학에 근무하고 있어서 그런지 대부분의 대답은 그럴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자세한 조사를 해 보지는 못해서 단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사서들이 인터넷이나 단말기를 통하여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사서들이 근무하는 환경과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지만 종이 책을 만지는 시간이 줄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기술은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구조로서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발전해왔다. 중요한 사회적 기술을 예로 든다면, 수렵사회의 사냥기술, 농경사회의 관개수로기술, 산업사회의 기계기술, 지식정보사회의 기술은 컴퓨터와 통신기술로 대표되는 정보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들은 도서관의 업무에 적합한 기술들을 도입하여 활용하여 왔으며, 정보기술은 많은 도서관업무에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이용자에게 수준 높은 정보 봉사를 가능하게 하였다.

정보기술에는 다종다양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정보인력의 총체로서 브레인웨어가 포함되며, 이러한 기술은 이용자와 자료의 연결고리인 동시에 인프라인 셈이다. 정보기술의 발달과정을 데이터와 정보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면, 1945~1965년을 데이터처리, 1965-1995년을 '정보처리', 그리고 1995년 이후를 '지식관리'의 시대로 규정할 수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은 정보매체의 다양화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매체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또한 정보나 오락의 제공매체가 다양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욕구변화는 e-book의 출현을 가져왔다.

종이 책의 대체매체로서 e-book은, 좁은 의미에서 보면 인터넷 표준 언어인 HTML과 XML을

* 한국도서관협회 출판위원장,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hanbh@cnu.ac.kr

응용하여 만든 책과 같은 고안물로 기존의 전자출판 기술의 발전과 함께 매체 융합과 새로운 매체 개발의 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매체이다. 따라서 e-book이란 저작자의 메시지를 전달자에 의해 디지털형태로 가공하여 전자저장 매체에 담거나 또는 전자 책 파일의 형태를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유통되고 전자 책 전용 뷰어나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보거나, 전자단말기를 통하여 볼 수 있는 새로운 출판물이다.

e-book은 기존의 종이 책과 차별화 된 특성으로 경제성, 기능성, 간편성, 멀티미디어 이용성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종이 책과 비교하여 가독성, 저작권 보호 등의 어려움이 있다. 2차대전 이 끝난 후 마이크로필름매체가 개발되었을 때에도 사람들은 이제 도서관자료는 마이크로자료로 대체될 것이며, 서가는 없어질 것이라고 떠들썩하였다. 그러나 지금 마이크로자료는 탁월한 축적능력으로 인하여 자료를 영구 보존하는 매체로서 활용되고 있고 서가도 사라지지도 않았다.

종이 책과 전자 책의 구분을 하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종이 책이든 전자 책이든 많이 읽고 보도록 이들 사이에 책 읽는 즐거움과 지식탐구의 다리를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종이 책은 오랜 기간동안 인류와 함께 발전하고 사랑 받으면서 이용되었다. 맥루헌은 1964년에 『구텐베르크 성좌』와 『미디어의 이해』를 통해 테크놀로지

결정론적인 시각에서 활자의 원리가 지배적이었던 시대가 이미 과거의 것이 되어가고 있으며, 인쇄물에 기초한 문명은 이제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일렉트로닉 미디어시대에는 활자형 인간 또는 활자문화로부터의 결별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한 이후 출판매체와 출판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이 논의 중에는 전자 책의 출현으로 인하여 종이 책은 사라질 것이라

는 시각, 종이 책은 현재의 위치에서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시각, 종이 책과 전자 책이 서로 보완 혹은 경쟁하면서 공존해 나갈 것이라는 시각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맥루헌의 주장이 제기된 지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종이 책은 나름대로 발전해 오고 있으며, 전자 책 또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오히려 전자 책은 종이 책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인 딱딱하고 접히지 않는 액정화면이 아니라 종이처럼 얇고 유연하며 재본돼 있는 책으로 발전하고

따라서 기존 출판과 전자출판의 관계는 상호 협조적인 공존의 관계를 인식하고, 각 분야의 장점을 살리는 영역으로 개발해야 한다. 전자 책은 실용서, 학습서, 소설(환타지, 무협, 대중소설 등), 백과사전 등의 책을 출판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며, 유아, 아동, 청소년을 위한 책이나, 문학작품, 교재나 학술서 등은 종이 책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있다. 휴대하기 편하며 언제 어디서나 펼쳐서 읽을 수 있고 눈에 피로감을 덜 주는 종이 책의 장점을 살리는 전자 책의 연구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전자 책이 추구하는 방향은 종이 책과 가깝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출판과 전자출판의 관계는 상호 협조적인 공존의 관계를 인식하고, 각 분야의 장점을 살리는 영역으로 개발해야 한다. 전자 책은 실용서, 학습서, 소설(환타지, 무협, 대중소설 등), 백과사전 등의 책을 출판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며, 유아, 아동, 청소년을 위한 책이나, 문학작품, 교재나 학습서 등은 종이 책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책은 엔터 키를 누르든지 손으로 펴든지 사람의 손길이 닿는 순간, 활자매체와 전자매체는 생명력을 띠게 된다. 이러한 느낌, 이러한 맛이 책의 매력이며, 이러한 느낌은 종이 책에서 더 잘 전달되는 것 같다. 책의 경우 손의 기능을 회복하는 입장에서 만들어져야 하며, 종이에 어떤 디자인으로 얼마나 잘 인쇄하느냐에 따라 책 맛은 달라지는 것이다.

인간은 독서의 과정 속에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꿈을 이해 할 수 있으며, 책읽기를 통해서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데, 이 창의력은 타인의 삶에 나를 접목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 장편소설에는 여러 대에 걸친 이야기 속에서 다양한 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소설들은 단순한 과거의 재현이 아니라 과거를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오늘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의 상처받은 마음도 책을 통하여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 도서관을 찾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사서와 도서관이 앞장서서 종이 책과 전자 책을 양손에 들고 책읽기를 통한 지식탐구의 문예부흥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종이 책이든 전자 책이든 넘나들며 읽지 않는 즉 지식이 없는 열정은 빛이 없는 불과 같기 때문이다.

이제 종이 책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리고 좋은 종이 책과 전자 책을 만들어 도서관에 놓고 즐거운 책읽기를 위한 환경개선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는 금강산의 상팔담에서 유래된 전설동화이다. 머지않아 금강산을 배경으로 그려진 전자동화책을 다운 받아 종이 동화책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종이 책과 전자 책 사이에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쌓여있기 때문이다. 